

## 아시아·유럽시장 진출

고니정밀 ●

고니정밀이 미주 시장 일변도의 수출전략에서 탈피, 아시아와 유럽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고니정밀은 전체 수출물량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주 시장이 최근 침체국면에 접어들자 수출지역을 다양화하기로 하고 해외 마케팅 파트너인 미사토닉스사와 공동으로 유럽 및 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키로 했다.

특히 고니는 일본과 중국이 최근 미주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어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고 중국 현지공장을 전진기지로서 삼아 아시아 시장의 매출비중을 4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 스위치 생산 설비 증성

경인전자 ●

스위치 및 리모컨 생산업체인 경인전자는 스위치 생산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통신부품사업을 주력 사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6년부터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통신부품 사업을 전개, 스위치 사업비중을 줄여온 경인전자는 최근 LG전자부품이 퇴출기업에 포함되자 국내 스위치

시장에 적지 않은 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스위치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현재 10대인 스위치 자동조립기를 대폭 증설하는 등 설비투자를 확대해 스위치 생산물량을 늘려 올해 스위치 분야에서 전년보다 20% 늘어난 1백2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경인전자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위성방송 수신기용 안테나 및 파워 모듈 등 통신부품 사업을 대폭 강화해 이를 주력사업의 하나로 육성하는 한편 현재 회사 전체 매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통신 부품 분야의 매출비중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올 상반기까지 1백30억원의 매출 실적을 보인 경인전자는 이 같은 사업확대 전략을 통해 하반기에는 1백50억원의 매출을 올려 올 한해동안 전년의 2백25억원보다 55억원이 늘어난 2백8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 노트북용 SMD 제품 등 판매 호조

국제전열공업 ●

수정디바이스 전문업체인 국제전열공업은 전세계 부품업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국내 IMF 한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용 표면실장형(SMD)시장 확대

와 오실레이터용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35% 늘어난 3백1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6월 결산법인인 국제전열공업은 미국 판매협력사인 폭스사를 비롯, 모니터·앰트론사 등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미시장 등을 꾸준히 개척하고 경쟁업체들의 저가 전략에 고품질로 맞서 기존 시장을 유지해왔다.

또한 노트북용 SMD 제품을 비롯, 위성방송 수신기 및 무선통신용 제품 등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한 것도 매출확대에 기여했다.

경기불황으로 국제시장에서 제품가격이 30% 이상 떨어졌을 때 국제전열공업은 이를 고품질로 대체해왔으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 PCB용 RCC원판 국내 첫 개발

두산전자 ●

두산전자가 빌드업(Build-Up) 기판 등 첨단 인쇄회로기판(PCB)의 핵심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RCC(Resin Coated Copper Foil) 원판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 본격 양산에 나선다.

두산전자는 지난 96년 초부터 착수한 RCC원판 개발작업을 최근 마무리짓고 오는 10월부터



냉장고 생산업체 등으로부터 품질승인을 획득, 오는 9월부터 월 1백만개 규모의 제품을 양산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월생산량을 2백만개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또 대량생산체제의 구축과 함께 후가공기술 개발을 강화해 제품가격을 일본 제품의 3분의 2 수준 또는 절반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 CRT대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치 'AMA'

대우전자 ●

대우전자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AMA(Actuated Mirror Array)의 자체 개발에 성공, 상품화에 나선다.

대우전자는 기존 브라운관(CRT)을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AMA의 개발을 완료, 올해 하반기 추계컴텍스 등 국내의 전시회에 출품하는 데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판에 나서기로 했다.

대우전자가 자체 개발에 성공한 AMA는 40만개의 미세한 전자거울을 이용해 영상을 표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디스플레이 장치로 현재 주력제품인 브라운관 및 액정표시장치(LCD)의 크기 및 무게, 밝은 데서 화면이 흐려지는 단점 등을 해결한 제품으로

현재 TI 등 외국업체들이 앞다퉀 개발을 추진, 시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전자는 이번 개발한 AMA의 경우 LCD보다 최소 5~10배 이상의 광효율을 지니고 있으며 해상도, 가격에서도 기존 제품에 비해 월등히 우수해 상품화에 나설 경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목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첨단 전자부품 사업 강화

대우전자 ●

대우전자가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세계경영이 가속화됨에 따라 핵심 전자부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최근 AV(음향, 영상), 가전(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등), 멀티미디어, 전자부품을 4대 중점사업분야로 재편키로 하고 그중 주요 가전핵심 부품군의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2천년까지 총 2억불을 투자, 전 세계 지역별·제품별 글로벌 부품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1 전자부품 세계화」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우전자는 완제품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가 높은 최첨단 부품사업의 확대를 위해 비메모리반도체 등 기술집약적인 핵심 부품은 자체 개발 및 전략적 제

휴를 통해 자가화하고 일반 가전 부품은 생산을 확대 TV, VCR,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등 주력 가전제품의 생산의 수직계열화를 이룰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2억불을 투자하여 해외 전자부품 공장을 현재 9개국 13개 공장에서 3년내에 20-개국 25개 공장으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부품 생산 기지를 구축, 생산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최첨단기술을 요하는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관련 차세대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생산 확대를 위해 부품 개발 연구소 및 사업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내 전자업계의 해외진출이 완제품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해외 현지 공장들이 선진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수입규제가 심한 EU, NAFTA의 까다로운 역내(域內) 부품 조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멕시코,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 각각 DY, FBT, 튜너, CRT, VCR헤드 및 드럼, 데크 등 핵심 부품공장을 확대 증설키로 하고 추가로 품목을 계속 확대해 부품 현지화율을 70% 이상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자부품 중에서 비교적 노동 집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코일이나 트랜스 등 나선형 응용 일반 부품은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임금이 낮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중미에

생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 다중칩 모듈 기판 사업 추진

대우전자부품 ●

대우전자부품이 차세대 인쇄회로기판(PCB)인 다중칩 모듈(MCM)기판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대우전자부품은 비동기전송모드(ATM), 노트북 PC, 핸드헬드 PC(HPC), 첨단통신기기시스템 등의 기판용으로 채택되고 있는 다중칩 모듈용 기판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전자부품이 신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MCM기판은 에폭시수지를 기반으로 한 일반 PCB와 달리 세라믹을 절연 및 방열재료로 이용하는 첨단 PCB로 각종 전자·정보통신제품의 경박단소화 추세에 따라 하이브리드 IC화된 각종 전자부품칩을 하나의 기판 위에 실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대우전자부품은 특히 MCM을 계열사인 대우전자·대우통신이 향후 개발할 첨단 정보통신기기에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이들 업체와 공동개발 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ATM 액세스 스위치 국산화

미디어링크 ●

네트워크장비 전문업체인 미

디어링크가 ATM 액세스 스위치를 국산화했다.

「CellinX-6120」으로 명명된 이 장비는 64kbps의 저속 가입자나 T1·E1 등 고속 가입자를 초고속의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입자망 접속시스템으로 지난 8개월간 3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것이다. 이 장비는 BISDN의 에지 스위치와 접속돼 다양한 가입자망을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설망의 라우터와 사설교환기 접속기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교환기, 별정통신사업자의 회선임대사업을 위한 교환기 및 금융권·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처의 사설 초고속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특히 DSO(64kbps)부터 STM-4(6백22kbps)까지 다양한 전송대역폭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가입자를 하나로 집적해 망으로 접속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파워 모듈과 CPU 모듈·스위치 모듈의 이중화로 무정전 전원 공급 기능이 지원되며, STM-4 모듈 이중화 기능까지 기본으로 설계돼 안정성 및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미디어링크는 밝혔다.

이 장비는 1.2Gbps, 2.5Gbps 무장애 ATM 스위치 두 가지 타입이 기본으로 가입자 및 망접속 슬롯은 10개가 지원되며

T1/E1, 25M, T3/E3, STM-1, STM-4 등의 BISDN과 10/1백 Base-Tx의 이더넷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된다.

ATM 액세스 스위치는 최근 루슨트테크놀로지사가 인수한 유리시스템사사의 장비가 일부 통신사업자의 시범장비로 도입됐으나 이번에 개발된 장비의 경우 기존 콘센트레이터에서 제공하지 못한 STM-4를 지원함으로써 소용량의 중계 스위치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TFTLCD 모듈 검사 장비 국산화 성공

바텍시스템 ●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의 인쇄회로기판(PCB)을 검사하는 장비가 국내에서 개발됐다.

보드테스트 전문업체인 바텍시스템은 지난 96년 10월부터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사업자금 등 1억6천만원을 투입, 그동안 외산장비에 의존해온 TFT LCD 모듈 테스트 장비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테스트 장비는 TFT LCD의 핵심 부품인 컨트롤 보드와 게이트 보드를 테스트해 불량여부 뿐만 아니라 불량내용·부위를 나타내 작업자가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 비용용지 팩시밀리 기능을 갖췄다. 이 제품은 특히 복사물이 배포되는 배지부를 본체 내에 삽입해 외부 배지트레이를 없앴으로써 55cm의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할 수 있으며 복사대기시 발생하는 소음이 20dB 이하이기 때문에 쾌적한 사무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 2차전지사업 통합

새한그룹 ●

새한그룹이 그동안 새한미디어와 (주)새한으로 이원화됐던 2차전지사업 추진주체를 (주)새한으로 단일화, 체계적인 2차전지 개발 및 양산을 위한 설비구축 작업에 본격 나선다.

최근 (주)새한 내에 전지사업단을 발족시킨 것을 계기로 2차전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새한그룹은 새한미디어의 전지관련 연구조직 및 인력을 (주)새한에 이관, (주)새한을 2차전지 사업의 주요 추진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한그룹은 새한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2차전지 연구설비와 연구인력을 오는 10월까지 모두 (주)새한으로 보내 기존 (주)새한의 전지연구팀에 흡수·통합시킬 계획이다.

(주)새한은 새한미디어의 전지관련 조직을 인계받는대로 기존 새한기술연구소 2차전지 연

구팀을 확대 개편해 리튬이온전지 및 리튬폴리머전지의 본격 양산에 대비한 전지전문연구소로 키워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주)새한은 전지 생산에 앞서 전지 전반에 걸친 경험을 축적한다는 전략아래 노트북PC용 리튬이온전지팩 사업을 전개기로 하고 충북 충주공장에 전지팩전용라인을 오는 9월 말까지 구축키로 했다. 10억원 정도가 투입될 충주 리튬이온전지팩 공장에서는 매달 1만개 정도의 노트북 PC용 전지팩을 생산하게 된다.

한편 새한그룹은 내년 3월까지 리튬이온 및 리튬폴리머전지 개발사업을 마무리짓고 오는 99년 6월 파일럿 설비를 구축, 2000년에 본격 양산한다는 2차전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놓고 있다.

##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 가능 장비·공정 개발

아남에스엔티 ●

반도체 패키지용 리드프레임 전문업체인 아남에스엔티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인 플렉스BGA(Ball Grid Array)·마이크로BGA·TaBGA·TSBGA·마이크로스타BGA 등에 적용되는 기판(Substrate)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및 공정을 개발, 본격 생산에 착수했다.

플렉스BGA·마이크로BGA 등 최근 선보이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는 두께가 얇아 기존 동박 기판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얇으면서도 변형이 가능하도록 테이프에 사용되는 폴리이미드 재질을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재질을 생산하는 장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아남에스엔티가 이번에 개발한 공정과 장비는 세계 최초로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일관 공정(Inline)화해 작업공수를 50% 이상 단축했으며 품질을 균일화하고 작업면적을 크게 축소했다. 또 이 공정과 장비를 이용, 서로 다른 종류의 기판을 생산할 수 있어 종류에 따른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공정을 이용해 생산가능한 품목은 집적성의 1층 메탈레이어로 소재의 두께가 50 $\mu$ m인 플렉스BGA·마이크로BGA·TaBGA용 기판이며 이 회사는 조만간 TSBGA 및 소재두께가 75 $\mu$ m인 마이크로스타BGA도 생산할 계획이다.

## 64비트 네트워크카드 국내 첫선

아답텍코리아 ●

아답텍코리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패스트 이터넷용 64비트 PCI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3종(모델명 ANA-62011/TX·

ANA-62022·ANA-62044)을 국내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64비트 PCI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카드는 데이터 처리량을 최대 2백Mbps까지 높이는 폴듀플렉스를 지원하며 64비트 버스 마스터를 채택해 CPU의 사용률을 최소화하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또 장애 극복(Failover)과 서버관리자 소프트웨어 등 아답텍사의 각종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을 가지며 초당 2백66MB의 대역폭을 제공하므로 추가로 서버를 구입하지 않고도 대역폭을 높일 수 있다.

국내 최초로 DSP내장형 32Bit MCU 개발

LG반도체 ●

LG반도체는 디지털 신호처리 기능(DSP)을 내장한 고성능 32Bit급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품(MCU, 모델명 : GMS31C26128)을 국내 최초로 개발, 8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이 제품은 DVD, 디지털 스틸 카메라, 셋탑 박스 등의 디지털 신가전분야 및 이동통신기기, 디지털 자동응답 전화기 등의 정보통신기기 분야에 범용으로 채용되는 핵심 반도체이다.

▲각종 영상 및 음성, 통신신호를 처리하는 디지털신호처리 기능(DSP) ▲시스템 제어 및

명령어 처리를 수행하는 MCU 기능 ▲대용량의 임베디드 메모리(1M Mask ROM) 등 모든 주변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하였다.

이 제품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바 없으며, 세계에서조차 히타지社 등의 일부 업체만이 최근에 개발을 발표한 최첨단 제품으로, 향후 System on a chip의 성격을 갖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이다.

'99년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6억개 정도로 추산되며, LG반도체는 내수시장을 비롯하여 동남아,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하여 연간 300만개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자가 원하는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OTP 타입의 MCU제품(모델명 : GMS37C26128)도 하반기부터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형 가전 등에 사용하는, 16Bit MCU와는 달리, 32Bit MCU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LG반도체는 음성압축, 정지화상압축, 음성인식 등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S방식 CCD 국산화

LG반도체 ●

LG반도체는 PC용 카메라, 디지털 스틸 카메라, 영상전화 등에 사용되는 핵심반도체인 고체촬상소자(CCD 또는 영상입력소자)를 자체 개발, 올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 1년 4개월간 11명의 전담 연구 인력과 2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이 제품은 1인치 크기에 최대 33만개의 화소를 구현할 수 있는 VGA(해상도 6백40×4백80픽셀)급이다.

이번에 개발된 CCD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각각의 화소에서 들어온 빛을 독립적으로 읽어 전송한 뒤 영상을 재현하는 이른바 PS(Progressive Scan)방식 제품으로 현재 일본의 소니·마쓰시타·샤프 등 3개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이 PS방식 CCD는 10달러 이상의 시장 가격을 유지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전량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올해 국내시장 규모는 3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LG반도체는 자체 성능 시험 결과 기존 CCD에 비해 색 재현성 ▲정전기 내입특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빛이 강할 때 화면 주변 부위가 하얗게 변하는 이른바 스미어(Smear) 현





형 아파트 중심으로 형성된 내수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영업 활동으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LG하니웰은 잠금장치에 대한 안전성과 편리함을 보강한 이번 제품이 시큐리티 개념을 중시하는 유럽 및 미국의 주거 문화와도 잘 맞아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추가로 개발된 영문과 중문 디지털 도어키로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반도체 기능검사용 델타보드 개발

영은전자 ●

특수 PCB 전문업체인 영은전자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반도체 기능검사용 PCB인 델타보드를 개발, 본격 생산에 나선다.

영은전자는 지난 97년부터 2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추진해 온 반도체 기능검사용 PCB인 델타보드 개발작업을 최근 마무리짓고 내달부터 생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영은전자가 개발한 델타보드는 마이크로컨트롤러·마이크로프로세서·메모리 반도체 등 각종 반도체류가 설계대로 제작, 제기능을 발휘하는지 여부를 전수검사 형태로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PCB로 10~40층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은 초다층 PCB로 설계될 경우 교류저항(임피던스)으로 인해 제품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0.15 $\mu$ m의 초미세 회로패턴 기술과 특수 원판을 사용했다고 영은전자측은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에 델타보드가 국산화됨에 따라 연간 2백억원 정도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9인치 DY 생산

오성전자산업 ●

트랜스포머 전문업체인 오성전자산업이 오는 10월부터 컬러 TV용 19인치 편향요크(DY)를 생산한다.

오성전자산업은 생산품목 다양화와 DY사업 확대를 위해 10월부터 중국 청도공장에서 19인치 DY를 5만개씩 생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모로코에 연내 이전

오리온전기 ●

오리온전기가 현재 대우그룹측에서 조성하고 있는 모로코 복합단지에 국내 브라운관의 생산라인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오리온전기는 대우그룹의 모로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될 현지법인에 30% 가량의 지

분 투자와 함께 5천만달러가 투자되는 연산 2백만대 지모의 브라운관공장과 관련 부품공장의 건설을 맡아 추진기로 했다.

따라서 오리온전기는 최근 국내 공장의 생산라인 구조조정차원에서 구미공장의 20인치 중형 브라운관 생산설비 1개 라인(연산 2백만대 규모)을 모로코의 복합단지에 들어서는 브라운관 공장에 올해 안으로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오리온전기의 이같은 결정은 브라운관의 공급과잉 현상 속에서 모로코의 브라운관공장에 신규설비를 집어 넣을 경우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오리온전기는 모로코 복합단지의 가동에 맞춰 구미공장의 설비를 이전해 나갈 방침인데 올해 안으로 이전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 품질경쟁력 우수 50대 중소기업 선정

오토닉스 ●

국립기술품질원에서는 '98년도 품질경쟁력 우수 50대 중소기업'을 품질, 경쟁력, 경영평가 등을 기준으로하여 품질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50개 업체를 선정해, 품질경영사례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품질경쟁력 50대 기업'을 지정하여 지난 7월 21

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품질경영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품질경쟁력 50대 기업 가운데 최우수업체의 사례발표회 행사를 가졌다.

전자분야에서 (주)오토닉스가 5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이들 품질경쟁력 50대 기업 가운데 최우수업체의 사례발표회 행사에 (주)오토닉스를 비롯한 9개 업체가 선정되어 발표회를 가지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주)오토닉스는 산업자동화의 선두기업으로서의 그 면모를 다시 보여준 결과라고 파악되며 비전 2002/혁신 30 운동을 통하여 품질경쟁력이 뛰어난 혁신적인 기능과 고성능, 고품질의 제품개발에 전력을 다하여 최상의 서비스와 21세기 자동화 산업의 세계적인 대표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 종합 전자부품업체로 육성

우영 ●

커넥터 전문업체인 (주)우영은 오는 2002년 매출액 3억달러를 달성, 종합 전자부품업체로 부상하려는 중기 경영계획을 마련했다.

우영은 올해 주식상장으로 투자재원 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규 사업분야인 LCD의 품질고급화와 주력사업인 커넥터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2002년 매출액 3억달러를 달성하는 종합 전자부품업체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우영은 지난 96년 신규로 참여한 LCD사업이 최근 불황에도 불구하고 순조로운 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품질 고급화를 통해 시장선점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영은 생산시설의 클린룸화를 현재 50% 정도에서 2년 이내에 1백%로 올리기로 하고 신제품 개발에도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주력사업인 커넥터 부문도 세계적인 커넥터기업인 미국의 ERNI, TNB 등과 OEM 생산 및 유통관련 전략적 제휴를 맺어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영은 생산중인 1천7백여종의 커넥터 품질을 높이고 반도체 테스트 등 특수용도 커넥터 개발에 힘을 쏟는 한편 국내 공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국 공장은 일반 상용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 이원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영은 향후 시장성장예상되는 RF와 IC 등의 신규 진출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유럽형 이동단말기 개발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는 공업기반기술과제의 일환으로 범유럽 표준이동전화(GSM) 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단말기 및 핵심 집적회로(IC)를 개발했다.

부품연구소는 삼성전자·아남에스엔티·대우통신·LG전자·한화정보통신 등의 업체와 함께 지난 93년 12월부터 98년 5월까지 1백72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GSM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단말기 및 핵심 IC 등을 개발,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개발 성과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GSM방식 디지털 이동통신기기는 GSM 표준의 1단계 규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무선 데이터통신에 필요한 PCMCIA 접속소프트를 내장하는 최신 기능과 고속 충전기능 및 유럽 7개국의 용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GSM 단말기의 핵심부품인 초고속 MSP(Mobile Signal Processor)와 MSP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툴, 그리고 GSM 시간제어용 주문형반도체(ASIC)칩을 개발했는데, MSP는 이동통신단말기의 베이스밴드 핵심부품으로 최대 5개의 명령어를 병렬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그만큼 처리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이중공샘 처

리장치를 채택했다.

현재 GSM 방식의 이동통신 단말기용으로 개발된 부품들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PCS), 무선가입자망 IMT 2000 등의 단말기는 물론 기지국이나 소마트 안테나의 신호처리 등 디지털신호처리칩(DSP)이 사용되는 분야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고속 이더넷 랜스위치 개발**

텔리웨어 · 기산텔레콤 공동 ●

네트워크장비 전문업체인 텔리웨어는 기산텔레콤과 공동으로 워크그룹 및 백본에 적용 가능한 고속 이더넷 랜스위치 'Teleway -1080EX'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10/1백 BaseT 포트를 최대 80포트까지 지원하는 제품으로 고집적 포트기술을 구현했으며 초당 8백만 패킷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5Gbps 순수 대역폭 스위칭 용량을 제공한다.

최대용량에서도 체중과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패킷 전달을 위해 축적전송, 컷스루(Cut-Through) 또는 다이내믹 스위칭을 통해 전달방식을 최적화해 비동기전송모드(ATM)와 유사한 QoS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체 개발한 자바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애플리케이션 Net

Quality'를 통해 넷스케이프나 인터넷 익스플로에 상관없이 웹 브라우저만 제공되면 어디서나 관리할 수 있는 '원격 네트워크 매니지먼트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번 이더넷 랜스위치에 이어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을 지원받아 오는 10월중 2.5Gbps ATM스위치를 개발, 출시할 예정이다.

**초소형 리모컨 수신 모듈 개발**

현인전자 ●

적외선(Ir) 발광다이오드 전문업체인 현인전자가 종전 리모컨 수신모듈에 비해 부피가 5분의 1 수준인 원패키지 형태의 리모컨 수신모듈을 개발, 공급에 나섰다.

이 제품은 가로 7.7mm, 세로 10.25mm, 두께 3.6mm로 기존 실드캔 타입에 비해 크기를 대폭 줄였으며 수신모듈에 들어가는 부품수도 IC와 포토다이오드 등 2개로만 구성, 가격을 이전 제품의 3분의2 이하로 낮춰 공급할 계획이다.

현인전자측은 이 제품이 인버터 형광등에서 일어나는 신호 간섭현상과 리모컨 지양 각도, 신뢰성 등을 개선해 선진업체 제품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우월하다고 밝혔다.

**ATM 교환기용 초다층 PCB 국산화**

하이테크교덴 ●

샘플PCB 전문 생산업체인 하이테크교덴이 비동기접속모드(ATM) 교환기용 26층짜리 초다층 PCB를 국산화했다.

하이테크교덴은 1년간의 연구 끝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주축 교환설비로 보급될 ATM 교환기용 26층짜리 초다층 PCB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 국내 4대 ATM 교환기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시험에 들어갔다.

이번에 하이테크교덴이 개발한 ATM 교환기용 PCB는 그동안 스웨덴 교환기용 PCB 업체인 PPC사가 국내 독점 공급해 온 제품으로 임피던스 특성치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테크교덴은 제품승인을 획득하는대로 양산에 나선다는 계획아래 국내 교환기업체와 성능시험 등 상용화를 위한 필드 테스트를 공동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수출 '정상궤도'에**

해태전자 ●

해태전자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해태전자는 부도 및 IMF 한파로 1·4분기까지 당초 계획대

비 30% 밑으로 급격히 떨어졌던 수출이 2분기 들어 뚜렷한 증가추세로 반전된 데 힘입어 지난 상반기 전체 수출액이 8천2백만 달러로 계획대비 80%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밝혔다.

특히 주력품목인 오디오의 경우 지난 1, 2월까지 5백만달러에 못미쳤으나 3, 4월 들어 1천만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5, 6월 두달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2천만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2·4분기 들어 오디오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나타낸 것은 부도 직후 다른 거래처로 발길을 돌렸던 데논·켄우드·하먼카든·소니 등 해외 바이어들이 다시 구매처로 돌아선 데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DTS 탑재 AV 리시버 앰프 등 신모델에 대한 주문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해태측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동 및 미국지역을 중심으로 주문량이 늘고 있는 카오디오와 첫 수출에 나선 자판

기·보일러 등 신규 품목 등도 수출증가세를 부추겼다. 해태전자는 올해 오디오의 경우 7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광중계기(3천5백만달러)를 비롯해 자판기(2백만달러)·보일러·페이저 등 신규 품목의 본격적인 수출로 당초 계획했던 2억달러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